난민인권센터 연구 분과 기획 및 운영 방안

**“Lives” Project 사업 계획(안)**

- 연구윤리

- 난민 연구

- 인문학 강좌

2014. 4. 17

박상희 운영위원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목차**

1. **“Lives” Project 개관** 
   1. Lives Project 의미
   2. 추진 배경
2. **“Lives” Project 세부분과 사업계획서**
   1. **연구윤리 사업계획서**

추진배경

사업목표

사업내용

진행일정

* 1. **난민연구 사업계획서**

추진배경

연구목표

연구내용

연구방법

연구기간 및 진행일정

* 1. **인문학 강좌 사업계획서** (작성자: 안은애 현장전문가)

추진배경

사업목표

사업내용

진행일정

1. **“Lives” Project 개관**
   1. Lives Project 의미

Lives는 살아있음, 삶, 인생, 생명, 목숨 등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의미에서 알 수 있듯이, Lives라는 단어가 많은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고, 또 설명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하여 Lives라는 단어를 선택하였습니다.

이러한 ‘단어의 힘’ 이외에도, Lives는 우리모두가 동등하게 갖고 있고, 누려야 하는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어쩌면 평소 우리가 사용하는 ‘난민’이라는 단어는 ‘우리와는 다른 사람’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본 프로젝트는 이러한 생각을 삼가며, 난민도 우리와 똑같이 살아있고, 우리와 똑같은 인생-목숨-생명을 가진, 똑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담아내기 위해서 Lives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의 삶Life으로 축약될 수 없는, 난민들의 다양한 삶들Lives 에 주목한다는 의미에서 Life가 아닌 Lives라는 용어를 선택하였습니다.

이처럼 Lives라는 말이 함축할 수 있는 의미들에 주목하며, “Lives” project라는 용어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 1. 추진 배경

그림 1 'Lives' Project

난민인권센터는 난민 연구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며, 이러한 연구 흐름이 장단기적으로 난민의 삶과 인권 향상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그 기초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에 난민인권센터 연구분과에서는 “Lives” Project 를 기획하였습니다. “Lives” Project는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됩니다. 첫째는 연구윤리이고, 둘째 영역은 난민연구입니다. 마지막 영역은 인문학 강좌입니다. 연구윤리 영역은 연구자가 난민연구 수행 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윤리 지침을 알리고, 윤리 지침을 따르도록 절차를 마련합니다. 연구 윤리는 난민 연구 영역의 세부 분과로 속할 수도 있지만, 연구 윤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별도의 영역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난민 연구 영역은 난민에 관한 일반적인 연구를 모두 포괄할 예정이며, 올해는 난민의 삶과 경험에 대한 기록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인문학 강좌는 난민의 재정착과 자립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난민의 자아존중감과 내적 확신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인문학 강좌는 난센 마이크로파이낸스 사업과 연계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그림 1 참고).

난민인권센터 연구분과의 기획 및 운영방안은 약 5개월에 걸쳐 난민인권센터 김성인 사무국장님과 안은애 활동가 그리고 박상희 운영위원의 회의를 통하여 구체화되었습니다. 김성인 사무국장님이 기본적인 의견을 내주었고, 박상희 운영위원이 이를 종합-체계화하였습니다. 난민인권센터 2월 운영회의를 통해 운영위원님들의 의견도 수렴하였습니다. 앞으로 박상희 운영위원과 안은애 활동가가 함께 활동하면서, 세부 기획과 운영방안을 확정하고 실행할 계획입니다.

1. **“Lives” Project 세부분과 사업계획서**
   1. **연구윤리 사업계획서**

추진배경

난민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난민에 관해 연구하려는 사람들도 많아지는 듯 하다. 난민인권센터에도 많은 사람(중고등학교서부터 대학교, 대학원 학생들 및 연구자 등)이 연구관심을 피력하고 난민을 만나게 해달라고 접근하곤 한다. 그런데 질적 연구 및 난민 연구 윤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 이러한 접근을 가려내고, 연구 윤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숙지하도록 권고하고자 연구윤리 기본 사항을 마련하였다.

사업목표

1. 난민인권센터는 난민연구윤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사람들에게 제공하여 난민연구윤리에 관한 정보제공과 교육기능을 한다.

2. 난민인권센터는 연구자들이 난민연구윤리를 숙지하도록 권고한다.

3. 난민인권센터는 연구자들이 난민연구윤리를 준수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는지 모니터링 한다(출판윤리).

사업내용

**사업목표 1)** 난민연구윤리에 관한 정보제공과 교육기능

- 난민연구윤리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리는 내용 공지:

난민인권센터 홈페이지에 난민연구윤리에 관한 별도의 페이지를 마련하여 난민연구윤리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리는 내용을 공지한다. 그 내용은 Oxford University의 Refugee Studies Center에서 채택한 연구윤리 가이드라인(지침)을 기초로 하며, 그 외 중요한 연구윤리 가이드라인들(예컨대 미국인류학회 윤리위원회 AAA-code(statement) of ethics <http://ethics.aaanet.org/ethics-statement-0-preamble/>)과 관련 연구를 참고하여 작성될 예정이다. 필요한 경우 내용을 업데이트를 통하여, 난민연구윤리 지침 내용을 확충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 난민연구윤리 기본사항 제공:

연구윤리에서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사항들, 예컨대, 연구참여자의 동의 하에 연구를 진행할 것, 연구참여자의 실명을 사용하지 않을 것(연구참여자가 동의하는 경우 실명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결정의 장단기 해악(harm)을 고려하여 결정할 것), 되도록이면 연구참여자의 사진을 사용하지 않되 사용시에는 반드시 연구참여자의 허락을 받고, 정면사진을 사용하지 않는 등 연구참여자의 익명성을 보장할 것 등등 -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를 난민인권센터 연구윤리 페이지에 게시하여 공유할 계획이다.

- 난민연구윤리가이드라인 번역본 및 요약본 제공:

난민연구에 관해서는 Oxford University의 Refugee Studies Center에서 채택한 연구윤리 가이드라인(지침)이 가장 공신력 있는 것으로 여겨지므로, 이를 전문 번역하여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요약본도 제공한다. 모든 내용을 난민인권센터 난민연구윤리 관련 페이지에 업데이트 한다.

**사업목표 2)** 난민연구윤리 심사 신청 및 연구 승인 절차 마련 및 시행

난민연구윤리는 난민을 주제로 진행되는 학술적인 연구뿐만 아니라, 난민을 소개하고 알리는 모든 형태의 글쓰기와 출판물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그 적용대상은 초-중-고등학생이나 대학생-대학원생들의 보고서, 학자의 논문뿐만 아니라, 작가의 출판물까지 광범위하다. 즉, 난민연구윤리는 보고서나 논문, 책 등의 글쓰기뿐만 아니라, 영상물, 사진, 목소리 등에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여기서 연구자라 함은 난민연구를 하는 전문학자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난민을 주제로 연구나 출판 등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 사람들 일반을 지칭한다.

연구자가 난민연구윤리를 숙지하도록 권고하기 위해, 난민 연구윤리 심사 신청 및 연구 승인 절차를 마련한다.

- 난민연구윤리 심사 신청 절차 마련:

연구자가 난민연구윤리를 숙지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도록 한다. 그 자료는 1) 연구윤리 관련 교육 이수 증명서, 2) 난민연구윤리에 관한 에세이, 3) 책임동의서(가칭)이다. 이 세 가지 형태의 자료를 묶어서 ‘난민연구윤리심사신청서’라 한다.

1. 연구윤리 관련 교육 이수 증명서: 연구윤리 관련 교육은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진행하는 연구윤리 관련 수업이나 워크숍 등을 말한다. 온라인 프로그램으로는 CITI(Collaborative Institutional Training Initiative Program) Korea (<http://www.citikorea.org>) 등에서 진행하는 교육과정이 있다.
2. ‘난민연구윤리에 관한 에세이(2-3쪽 분량): 본인이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의 목적과 전반적인 연구계획과 더불어, 난민연구윤리란 무엇이며, 난민연구윤리로 미루어 보았을 때, 연구의 수행이 어떠한 방식이 진행되어야 하는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다.
3. 책임동의서(가칭): 난민에게 가해질 수 있는 어떤 형태의 피해나 해악(harm)에 대해 보상을 하겠다는 ‘피해보상에 관한 규약’에 대한 동의서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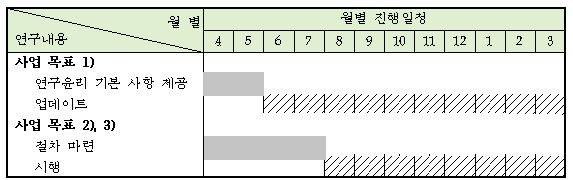
- 난민연구윤리 승인 절차 마련:

난민연구윤리심사신청서를 토대로 난민인권센터 사무국과 운영회의에서 심사를 거친 후, 승인이 된 경우에 한하여, 난민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사업목표 3)** 난민연구윤리 모니터링(출판윤리) 절차 마련 및 시행

연구윤리 기본 사항을 잘 숙지하고 있는 경우라고 해도, 출판물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연구윤리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출판 이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난민인권센터에서 수행된 모든 연구에 관하여, 그 출판 이전에 연구윤리(출판윤리)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확인하고자 연구물을 출판 전에 열람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난민인권센터에서 확인하는 범위는 연구윤리가 제대로 준수되었는지를 판단하는 범위로 제한하며, 연구의 독창성과 자율성을 존중할 것이다.

진행일정



* 1. **난민연구 사업계획서**

추진배경

난민인권센터는 난민연구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보다 확충하려고 한다. 난민연구라 함은 난민에 관련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일 수도 있고, 한국에 거주하는 난민에 관한 독자적인 연구 수행이 될 수도 있다. 현재까지 난민인권센터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난민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정리부터, 시리아, 나이지리아 등 주로 난민이 발생하는 지역-국가들에 대한 소식을 전하기도 했고, 영국, 호주, 프랑스 등 주로 난민을 받아들이는 지역-국가들에 대한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 이런 역할들 모두 난민연구기관으로서의 기능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다.

난민인권센터는 이에 더 나아가서, 독자적인 연구를 수행하려고 한다. 장기적으로는 난민에 관한 거의 모든 연구영역을 포괄할 예정이며, 올해는 난민의 삶과 난민의 이야기를 기록해나가는 연구부터 시작할 것이다. 이 연구를 선택한 이유는 난민기록을 보다 체계화할 필요성이 있었고, 이를 연구와 연계한다면 난민의 삶과 난민의 이야기를 보다 심층적으로 한국사회에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연구목표

1. 한국 내 난민의 삶과 난민의 의견-목소리를 기록하여 자료화한다.
2. 난민들의 경험을 토대로, 한국정부의 난민정책을 모니터링 한다.
3. 난민들의 상황에 적합한 더 나은 정책 대안을 모색한다.

연구내용: *‘난민의 삶’ – 한국에서의 경험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난민이 한국에서 경험하는 삶에 대한 ‘증언’이자 ‘기록’의 성격을 갖는다. 기록 영역은 경제상황, 사회관계, 정서적 측면 등등으로 세분화될 것이다. 그 기록 영역에 관해서는 국내외의 선행연구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확정할 것이다. 본 연구는 실천적으로 난민들의 경험을 토대로 한국정부의 난민정책을 모니터링하고 더 나은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목적도 있기 때문에, 난민정책과의 관련성 속에서 난민의 상황을 기록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이다.

난민인권센터는 매년 난민의 삶을 기록하여 자료화하고, 그 내용을 단행본 형태로 정리하여 ‘난민의 삶’ 책자를 발간할 계획이다.

우선은 한국에서의 경험을 중심으로 기록을 할 계획이다. 그러나 난민의 경험이 한국이라는 하나의 국가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난민의 삶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난민의 경험을 한국이라는 경계에 구획 짓지 않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난민의 경험을 장소에 구획짓지 않는 연구방법 중 하나가 생애사 연구방법이라고 보며, 난민 생애사 연구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면서 연구를 진행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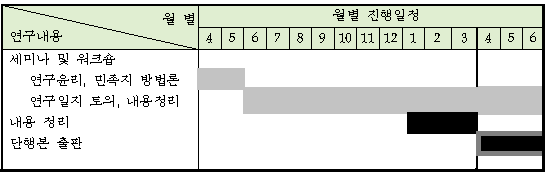
연구방법

연구방법론은 민족지 연구방법론이고, 연구방법은 참여관찰과 비공식적 면담 및 공식적 면담이다. 활동가들(현장전문가들)이 활동(연구)일지를 작성할 것이며, 약 1년간 난민과 상호작용하며 지속적으로 난민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방법을 사용할 것이다. 연구참여자에게 활동(연구)일지 작성 등에 대해 알리고, 그 목적과 ‘난민의 삶’ 프로젝트에 관한 설명을 충분히 하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다. 이 프로젝트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연구참여자들만을 프로젝트에 포함하도록 한다.

‘난민의 삶’ 프로젝트가 활동(연구)일지를 기반으로 하지만, 활동보고서의 성격은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활동보고서란, 활동가 개개인이 난민활동가로서 일을 하며 겪고 느낀 점들을 자유롭게 기술하는 형식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렇게 된다면, 난민활동가의 삶을 기술하는 것이다. ‘난민의 삶’에서는 활동(연구)일지를 토대로 난민의 삶을 종합해내고 전반적인 그림을 그려내는 작업을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장전문가와 세미나와 워크숍을 통하여 민족지 연구방법론 등 연구방법에 대한 공부를 진행할 것이다. 또 매주 워크숍을 통하여, 현장에 알맞은 연구방법론이 무엇일지 토론하면서 연구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연구기간 및 진행일정



4월-5월: 세미나 및 워크숍– 연구윤리, 민족지 방법론(활동(연구)일지 작성법 등) (매주 1회)

6월-3월: 세미나 및 워크숍 – 활동(연구)일지 토의 및 내용정리 (매주 1회)

1- 3월: 내용정리 모임 (매주1회)

4월-6월: 가능한 한 내년 난민의 날(6월 10일)에 맞추어 ‘난민의 삶’ 단행본 출판을 목적으로 함.

* 1. **인문학 강좌 사업계획서** (작성자: 안은애 현장전문가)
     1. 추진배경

난민인권센터(이하, 난센)의 모든 사업의 목적은 결국, 난민으로 하여금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하는 데 있다. 우리의 운동이 난민’인권운동’이라 불리는 것이 그 이유이다. ‘인간다운 삶’에 관한 다양한 정의와 요건들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립’이다. 자신의 삶에 대해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여 살아가는 ‘자유’는 인간의 권리이고, 인간다움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

난센은 난민을 단순한 구호의 대상으로 타자화 하는 것을 지양한다. 난민이 개별적이고 독립적이며 고유한 자신만의 권리를 가진 ‘인간’이라는 점이 난센의 난민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의 근간이다. ‘난민 인문학 강좌’는 난민의 인간다운 삶과 자립에 대한 질문에 대한 난센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답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난민 인권 강좌가 난민의 전체적인 ‘삶’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하는 “Lives Project”에 속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귀결이라 할 수 있겠다.

난민의 자립을 경제적 자립으로 협소하게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어쩌면 경제적인 독립은 정신적인 자립의 결과일지 모른다. 인간은 자신 스스로를 소중하다고 여기는 생각, 그리고 타인도 자신만큼 소중하다는 믿음, 이것으로 인해 일하고 싶고, 연대하고 싶고, 살아내고 싶어진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얼 쇼리스의 ‘클레멘스 코스’나, 후세 안토니오아브레우의 ‘엘 시스테마’, 그리고 한국의 경우 ‘성프란시스 인문학과정’[[1]](#footnote-1)이 시도되었을 것이다.

난센은 난민의 자아존중감을 높이고, 자신에 대한 긍정적 내적 확신을 다지는 데에 있어서 도구로서의 ‘인문학’을 선택하고자 한다. 인문학은 인간에 관한, 인간의 삶에 관한 학문이며, 우리가 누구이며,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한 인류의 누적된 대답들이다. 난센은 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문학 강좌를 통해, 난민들이 비록 현재 상황이 암담해도, 이겨나갈 내공과 튼튼한 마음의 근력을 기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난민 각각 개인들이 겪었던 한국으로 오기까지의 스토리와 실패들은 그들 자신과 그 삶에 대한 자신감을 잃도록 작용했을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민은 새로운 삶을 위해 국경을 넘어온 용기를 지닌 사람들이다. 험난한 상황을 돌파하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이 결국, 용기라면, 그래서 그것도 능력이라 할 수 있다면, 그것을 인문학 강좌를 통해 스스로 발견하여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데에 난센의 인문학 강좌의 목적이 있다.

* + 1. 사업목표

1. 난민인권센터는 난민을 위한 인문학 강좌를 개설하여, 난민이 긍정적인 내적 확신을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로써 난민의 자립을 돕고, 난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다.
   * 1. 사업내용

인문학은 보통 문학, 사학, 철학 등으로 구성된다고 여겨지므로, 강좌의 내용 또한 그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성프란시스 대학의 ‘인문학과정’의 경우, 철학, 문학, 한국사, 예술사, 글쓰기 등으로 커리큘럼을 구성했다.[[2]](#footnote-2) 난민인권센터에서 개설할 인문학 강좌 또한 유사한 커리큘럼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만, 노숙자와 난민의 상황의 상이함을 감안하여, 국내외 사례를 참고하여 난민을 위한 특성화된 커리큘럼도 마련할 것이다. (예: 세계사, 언어교육, 그림그리기 등)

* + 1. 진행일정

1) 일정 - 2014년 후반기부터 시작할 예정 (강좌의 기간과 시간 등 결정해야 함)

2) 예산– 외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 모색

(꼭 인권이나 난민관련단체가 아니어도, 인문학 교육 관련 단체로부터도 가능할 것)

3) 계획과 운영에 있어, 특히 유념해야 할 부분

- 성프란시스대학의 인문학과정과 같은 사례에서 볼 수 있듯[[3]](#footnote-3), 노숙자들의 참여동기는 그들 자신의 인문학 교육에 대한 욕구뿐만 아니라, 인문학 과정과 관계된 실무가들과 강사진들과의 관계 속에서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한다. 따라서, 난센 활동가들의 참여와 독려가 필요하며, 강사진을 섭외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 “대화와 토론, 그리고 동등한 인격체로서의 학습자 존중”[[4]](#footnote-4)이라는 부분을 유념해야 한다. 난민들에게 있어 한국에서의 인문학 교육 과정의 기회는 현실적으로 매우 적을 것이다. 또 학습/교육 수준의 차이도 존재하기 때문에 강좌에 참여하는 방식이나 강사와의 소통 방법에 서투를 수 있다. 이 부분을 감안할 때, 난센 활동가들, 강사진, 그리고 난민들 간의 진솔한 “대화와 토론”은 절실한 것이고, 무엇보다 이를 위해 그러한 대화와 토론이 가능한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난민을 동정이나 연민의 수혜자가 아닌, “동등한 인격체로서의 학습자”로 대하는 것은 난민 인문학 강좌를 준비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사안으로 생각된다.

1. 임영인, “인문학 교육으로 노숙인에게 희망을”, 『경향잡지』, 2007. [↑](#footnote-ref-1)
2. 김의태·강대중, “노숙인 자립을 위한 인문교양교육의 가능성-<성프란시스대학 인문학과정>을 중심으로”, 『평생교육학연구』, 18(3), 2012, 207쪽. [↑](#footnote-ref-2)
3. 김의태·강대중, 위의 논문, 213-214쪽. [↑](#footnote-ref-3)
4. 김의태·강대중, 위의 논문, 211쪽. [↑](#footnote-ref-4)